

# 정원 및 원림 용어 정립을 위한 고찰

박경자

(사)전통경관보존연구원

## I. 연구배경

2000년대초 전통조경 용어가 보편화되었고, 최근에는 현대와 전통시대에 정원용어가 통용되고 원림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전통시대에서는 정원이나 원림용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시점에서 문헌고증에 의해서 옛부터 익숙하게 사용되었던 용어를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지난해 11월 동아일보에 '정원이 아니라 원림입니다'의 기사에서 제기되었듯이 전통에서는 전통정원이 아니라 전통원림 용어가 사용되어야 하는 고찰이 요구된다.

## II. 연구 결과

### 1. 정원과 원림의 차이점

현재 한국전통조경이나 전통정원, 전통원림의 혼재된 표현이 통일되어야 하며,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전통조경을 한국전통원림이란 용어로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종목 교수에 의하면 정원(庭園)이라는 용어는 『삼국사기』, 『고려사』 등 이른 시기의 문헌에 보이지 않으며 대략 16세기 문헌에서부터 간헐적으로 보이지만 그 용례가 그리 많지 않다. 이에 비하여 원림(園林)은 고려 시대 임춘(林椿)의 <題天院柳光植家橙>에 보이는 “會看秋晚園林霜” 등 고려 중기 문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확인되며 문집류에서도 원림(園林)이라는 용어가 매우 자주 사용되었다. 또 『고려사』 열전(列傳)(閔頤) “居第置園林, 每花時召客, 置酒賦詩以爲樂”에서부터 보이고 『세종실록世宗實錄』(1435년 4월 12일)에 “日午, 有豹入都城, 自開川走至安國坊平壤君趙大臨家園林, 元金等四人捕進, 賜物有差, 仍命有司, 行解怪祭”에서도 확인되며 이후 실록에 매우 빈번하게 확인된다. 이러한 점에서 전통시대 정원(庭園)이라는 용어보다 원림(園林)이라는 용어가 훨씬 일반적인 용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5세기 후반 처음 간행된 언해서(諺解書) 『두시언해』에는 정원을 뜻하는 말로 원림(園林)이라는 용어는 보이지만 정원(庭園)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園)을 하나의 명사로 사용하여 번역한 예가 매우 많으며, 중국 음에서 기원한 '위안'이라는 용어가 더욱 자주 사용되었다.

### 2. 용어 문헌 고증

#### 1) 정(庭)

논어 팔일, ...孔子謂季氏宮宰微生高曰八佾舞於庭  
무어정하니

고려도경(高麗圖經) 선화봉사고려도경4, ...山勢稍逼。中庭隘狹

조선왕조실록 태조 총서, ...전하가 과거(科擧)에 급제하니, 태조가 대궐 뜰[闕庭]에 절하고는 매우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등등

#### 2) 원(苑)

가정집, 금원(禁苑)의 숲이라는 뜻으로 상림(上林)

조선왕조실록 태조 3년 갑술(1394), 곰새끼를 바치는 사람이 있으므로 후원(後苑)에 기르게 하였다.

태조 6년 정축(1397), 비원[秘苑]에는 꽃이 있어 벌이 꿀 모아가고

태조 7년 무인(1398), 궁원(宮苑)... 연년(年年)이 상원(上苑)의 피꼬리와 꽃,

승정원일기, 후원, 장원서(掌苑署)

일성록, 복원, 어원(御苑) 등등

#### 3) 정원(庭園)

조선왕조실록 태종 14년 갑오(1414), 어느날 위주(僞主)가 말을 달려 노승의 정원(庭園)에 들어갔다

세종 5년 계묘(1423), 상림원 별감(上林院別監) 허염(許廉)과 유덕생(劉德生)이 경복궁(景福宮) 정원(庭園) 안의 노루와 사슴을 잡아 기르면서

세조 7년 신사(1461), 시위(侍衛) 한 종친(宗親)·재추(宰樞)를 정원(庭園)으로 불러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등등

동문선, 봉래산은 동해(東海) 가운데 있다는 삼신산(三神山)의 하나이다. 여기서 신선이 산다는 봉래산을 모방한 정원(庭園)을 말한 것이다

東州先生文集卷之三 漫寓堂記, 凡爾室之所有木石花鳥 階庭園池之實

부상록(扶桑錄) [석문(石門) 이경직(李景稷)]... 좌우 여염에는 누각(樓閣)이 많고 소위 양반의 집 정원(庭園)에는 송죽(松竹)이 10에 8~9였는데...

양촌집(양촌집(陽村集) 4권, 빗속에 감회가 있어서, 정원이  
고요하여 섬돌에 이끼 끼고 / 庭園寥寥滿砌苔... 등등

4) 정원(庭苑)

조선왕조실록 선조 26년 계사(1593), 봄·가을에도 정원(庭  
苑)을 돌아본 적이 없었다

홍재전서, 庭苑媚春燕정원에 봄풀이 아름다우니。綠蕉新葉展  
기록이 거의 없다. 각1건 정도

5) 정원(庭院)

동국이상국집, 日斜庭院無人到

동문선, 雨餘庭院樹陰涼

간이집, “그가 특히 솔바람 소리를 좋아한 나머지 정원에 온통  
소나무만 심어 놓고는 그 음향을 들을 때마다 흥연히 즐거워하였다.  
[特愛松風 庭院皆植松 每聞其響 欣然爲樂]”는 기록이 있다.

《南史 卷76 陶弘景傳》

계곡집, 햇빛 나긋나긋 조용한 집 뜨락에 / 日長庭院靜

조선왕조실록 명종 10년 을묘(1555), 날이 쌀 때는 먼 것 같은  
데, 정원(庭院)이 흰 빛을 띠고 있고 등등 한국문집총간에 많은  
글들이 수록

6) 원림(園林)

고려사절요

동문선

조선왕조실록 세종 17년 을묘(1435)

성종 21년 경술(1490)

효종 즉위년 기축(1649), 관백(關白)이 새로 원림(園林)을  
만들어 진귀한 새와 짐승을 널리 모았기 때문에... 등등

계갑일록(癸甲日錄), ...는 녹자 원림(園林)엔 새 소리 맑고 /

雪盡園林鳥語清...

계곡집(谿谷集), 장생의 시에 차운하다[次張生韻].... 한 해  
저무는 정원의 숲 낙엽 다 저버리고 / 歲暮園林搖落盡..

기언(記言), 원림(園林)에 작은 정자를 짓고

다산(茶山)시문집, 자신을 비웃음[自笑].... 살구나무 동산에  
서 술이나 늘 마시고 / 紅杏園林留酒飲...

도은집(陶隱集), 여관에서 피꼬리 소리를 듣고 [旅寓聞  
鶯] ...동산 숲 대낮에 여름 바람 시원한데 / 園林白晝暑風清...  
등등

'동산의 뜰'을 의미하는 용어 중에서 원림(園林)은 고려시대  
부터 가장 많이 쓰인 것 같고, 조선시대 기록에도 가장 많이 나  
온다.

### III. 결 론

庭園과 園林의 차이점을 고찰한 결과, 중국에서 '놀이 휴식하  
는 장소'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원림(園林) 용어는 한국의  
경우 문헌고증에 의하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서 원림은 정원  
과 같은 뜻인 '동산의 뜰'로 사용되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는 정원(庭園)은 정원 용어(庭園, 庭苑, 庭院)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이 시대의 원림과 정원 사용빈도를 비교해보  
면 원림은 정원보다 절대적으로 많이 쓰인 익숙한 용어였다. 따  
라서 현재 한국전통조경이나 한국전통정원, 전통원림이 혼재되  
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은 한국전통원림으로 통일되어서 사용되  
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국립문화재연구소(2014) 명승지정 기준 내 경승지 개념확립을 위한 기  
초연구.